

한반도 평화 불/가능성과 멸망의 정동

김성경*

국문요약

이 글은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가중되고 있는 평화 무감각에 주목하면서 그것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북한을 향한 식민주의적 시각을 문제시한다. 생존주의와 경제주의가 사회 전반을 장악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가난하고 전근대적인’ 북한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북한이 사람들의 무의식 수준에서 열등하거나 야만적인 존재로 감각되면서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동등한 주체로 인식되지 못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목표로 한 정부의 통일정책조차 북한을 남한의 번영을 위한 ‘자원’ 혹은 ‘시장’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극단적인 경쟁 사회가 초래한 멸망의 정동이 확산되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강화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같은 역사적 과업에 대한 냉소적 무관심이 전방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 글은 멸망의 정동이 현재의 사회적 조건의 해체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함으로써 이것을 희망의 가능성으로 재위치시키고자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적 정동을 어떻게 현재의 가능성으로 재전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주제어: 평화 무감각, 북한, 미디어 재현, 식민주의적 시선, 멸망

*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ksksocio@kyungnam.ac.kr

I. 들어가며: 한반도 평화 무감각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던 2020년, 시민사회는 〈한반도종전평화〉 캠페인을 통해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2023년에는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700여 개 국내 시민사회·종교단체와 70여 개의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 힘을 모았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고, 동아시아에서 미중 전략 경쟁은 더욱 첨예해졌으며,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긴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었다.

하지만 전쟁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온적 수준에 머물렀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결집하고자 했던 〈한반도종전평화〉 캠페인의 3년 동안의 활동도 2023년 10월에 20만 6,629명의 서명을 미국 국무부와 UN 사무처, 주 UN 한국 대표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캠페인의 성과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당하지 못하지만, 3년 동안 한국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예상치를 밑도는 숫자였다. 백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했던 것을 보면 시민사회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분단된 한반도에서 무엇보다 간절한 지향이기에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그 이면에서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군사주의를 가리키고 있었다.

범박하게 정리하면 한반도에서 평화는 현실적이지도, 그렇다고 실천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평화에 대해서 더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지고 있다. 물론 70여 년 동안 남북이 서로 적대하는 분단체제가 유지되면서 군사주의에 기반을 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믿음은 공고하게 작동해 왔다(김성경 2020). 하지만 최근에는 분단과 군사적 위협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한층 강화되면서 평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져 버렸다. 일상 속 폭력이 편재한 분단국에서 평화는 ‘추상적’ 수준에서만 논의되거나, 현실 국제정치를 무시한 ‘이상적’ 접근으로 폄하된다. 분단을 매개로 점점 더 강화되는 정치적 당파성은 평화 논의를 특정 정치 진영의 주장으로

정치화하기도 한다. 정전체제를 사실상의 평화로 해석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지정학적 위치가 불안한 한반도에서 평화 무관심과 무감각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이다. 한국 사회가 점차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을 제어할 역량은 커녕 군비 증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러하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를 기형적으로 만든 분단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근 가시화된 평화 무감각은 신자유주의적 정동의 확산과 주체의 파편화 등과 결합하면서 과거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혀 다른 감정구조의 양태를 띠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라는 무정형의 가치와 지향보다는 경제적 손익 관계와 같은 가시화된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경제주의적 감정구조가 강화되면서 평화 정착이라는 역사적이며 장기적인 지향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감각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 기후 재앙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의 상황을 겪으며 한국 사회 전반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소거된 상태, 즉 곧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좌절감에 기반을 둔 ‘멸망’과 ‘절멸’의 정동이 확산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향성은 남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안착한 국가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누려 온 부와 정치적 안정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좌절감의 확산에서 기인한다.¹⁾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남한은 경제적·정치적 진보(progress)를 추구해 왔지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녀 세대가 등장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단이나 통일은 점차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 짧은 글은 신자유주의적 한국 사회에서 징후적으로 포착되는 평화 무감각과 멸망의 정동의 관계성에 천착하여 한반도 평화의 불/가능성을 문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 무감각이 작동하는 기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한반도 평화 논의가 한 치도 나아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분단과 신자유주의가 착종되어 만들어 낸 문제적 정동인 ‘멸망’을 주목하고

1) 유럽에서 극우 정치가 점차 확산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의 예는 스웨덴의 총선에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정당으로 정의되는 스웨덴민주당이 제2당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공급의 위기 등이 극우 정치를 더욱 활개 치게 했다는 분석이 많다.

자 한다. 멸망의 정동은 희망 없음을 뜻하는 절망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 더 나아가 인류 그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감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인적 수준의 고통에서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극단적 감각으로 멸망의 정동이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이러한 비관적 정동은 인류가 현재 목도하고 있는 위기와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력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사회적 조건의 해체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열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희망적이기도 하다. 기존의 진보적 역사관, 기술결정론, 자본주의적 성장주의 등을 폐기해야 한다는 압력이 점차 확산하는 것도 그러하고, 불평등, 소외, 착취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상호의존적인 주체들의 돌봄과 연대에 주목하려는 시도가 멸망의 틈새를 비집고 점차 힘을 얻어가는 것도 그러하다.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유명한 그람시의 격언을 다시 끌어오면, “지성의 비관”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의지의 낙관”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세계의 끝을 상상하는 인류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적 정동을 현재의 가능성으로 재전유할 수 있느냐에 따라 ‘멸망 이후’의 세계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II. 신자유주의의 윤리: 생존주의와 능력주의의 전면화

‘멸망’이라는 정동은 생존주의와 능력주의가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생존주의와 능력주의가 극단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기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가 추동한 생존주의라는 정동은 필연적으로 주체의 개체화 및 파편화를 추동한다(김홍중 2015; 김홍중 2009). 개인의 사회경제적 생존이 최우선 가치가 되면서 공동체적 가치와 기대가 쇠락하였으며, 역사성과 시간성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고, 사회적 윤리에 대한 합의가 느슨해졌다. 노동 유연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 유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스스로 키워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노동 경쟁에서 낙오하는 것은 개인의 실패이자 책임이 되며 철저한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주체를 경영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를 살

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세넷 2002; 서동진 2014). 이로 인해 노동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경쟁의 공정성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요건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졌다.

기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부정한 권력이 아닌 투명한 권력 분배를 통한 평등한 사회 구현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어 왔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극단화된 최근에는 기여에 따른 보상이 곧 공정이라는 담론이 확산되었다(오찬호 2013; 김석호 2018; 정태석 2021). 이론적으로는 공정(fairness)은 정의(justice)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두 개념 모두 형평(equity)의 원칙과 평등(equality)의 원칙을 포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형평은 기여에 따른 보상을 뜻한다면 평등은 각자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에 가깝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라는 것은 사회적 환경과 경제 체제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분배의 과정은 역동적이고 상대적인 까닭에 형평과 평등 중 하나의 기계적인 적용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코 가능하지 않다(구은정 2023; 코닝 2011). 재능, 운, 자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작동하는 현실 세계에서 기회의 평등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공정 담론에서는 망각되며, 결과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정책적 개입도 불공정한 것으로 폄하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 백인 중산층 우파 세력들이 젠더, 인종, 지역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할당제를 ‘새치기’의 전형적 사례로 지목하며 불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언제나 미국을 추종해 온’ 한국 사회의 공정 담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측하게 한다(흑실드 2017, 186-190).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능력주의와 생존주의가 시대정신으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상황에서 공정 담론의 확산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신화적 의미화의 성격을 띤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경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불평등, 차별, 위계에 복종하게 되며, 자유로우며 능력 있는 개인이라는 사회적 전형에 포함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낙오자임을 받아들이게 된다(박권일 2021). 또한 임혁백(2021)이 지적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의 공정 담론은 기회의 평등은 보장하되 결과의 불평등은 용인하는 철저한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사고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권력적 우위를 점유한 집단에서 발화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공정 담론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들에 의해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적인 경제 체제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은 불공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무력화된다.²⁾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 일반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이나 “구조적 불평등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석열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것 등이 예시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공정 담론이 노동시장 혹은 경제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작동하는 시대정신이 되었다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된 계기였던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둘러싸고 다시금 공정 담론이 등장한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결국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단일팀 구성을 통해 평화 분위기를 고취하려 했던 정부는 크게 당황했다.

사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하나의 주요 기점이었다. 북한이 2017년 화성-12형 중단거리탄도미사일 실험, 6차 핵실험, 그리고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자 했던 문재인정부는 2017년 12월 해외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그 방식은 올림픽 기간 전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북한에 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는 것이었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기뻐했다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남북 정부 관계자는

2) 공정 담론의 폭발을 촉발한 대표적인 사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으로 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들과 보안 요원의 역할을 수행한 비정규직이 ‘평등’할 수 없다는 논리가 봇물 터진 듯 터져 나오면서 ‘시험’과 ‘노력’에 따른 차별이 공정한 것이지, 시험 여부와 관련 없이 동등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담론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사실 이러한 공정 담론은 ‘시험 만능주의’와 ‘승자독식’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이다. 동시에 누군가가 좀 더 안정적인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될수록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들다는 사고가 확산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결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는 신자유주의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은 결국 모두를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사건이었다. 한편 노동의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정치적 레토릭에 머문 줄속 행정이었으며, 실질적인 정규직화도 아니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장혜경 2020).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고, 남북 협상단은 여자아이스하키팀을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흥행요소를 찾기 힘들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 단일팀과 북한의 참여로 국민적 관심과 세계적 호응을 기대했다.

과거 남북단일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곤 했다.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이 한 팀을 이뤄 스포츠 경기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 상당수는 갑작스러운 단일팀 구성이 ‘정치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상당 기간 동안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준비를 한 23명의 남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제약된다는 사실에 대다수의 국민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박영우 2018).³⁾ 올림픽 출전 기회가 없었던 북한 여자아이스하키팀 선수들이 단일팀을 통해서 출전 기회를 얻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채 권리를 얻는 것이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무리 사회적 혹은 국가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회적 동의가 확인되는 지점이다.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마치 분단과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불평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존재했지만,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서 세대적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예컨대 2018년 2월 1주차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중 62%, 30대 중 55%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여 세대 중에서는 가장 부정적 의견이 높았지만, 40대를 제외하고 50대와 60대도 모두 높은 수준의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박주화 2021). 다시 말해 ‘공정’을 향한 열망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혹은 평화라는 거대 담론이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사회적 윤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3) “정부에서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에 관해 기존 23명의 선수 엔트리에 북한 선수들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방식이라며 기존 선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일부 선수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 23명의 엔트리에서 규정상 22명이 경기에 출전하는데, 아무리 23명+@로 엔트리를 구성해도 북한 선수가 1명이라도 경기에 출전하려면 한국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평창올림픽 이후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의식이 긍정으로 바뀌었다는 결과도 존재한다. 박주화가 주장한 것처럼 평화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서는 부정의견이 긍정의견으로 바뀐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 점은 충분히 분석되거나 의미화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박주화 2021). 즉 공정이나 정의 담론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럴 줄 알았다”는 후견지명 편향에 기반을 두어, 부정적 인식만을 강조하여 해석한 과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도대체 왜 남북단일팀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망각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다시 말해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대체적으로 단일팀이라는 기억을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각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스포츠 경기라는 특성과 미디어에서 남북단일팀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이 긍정적 의견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다가 올림픽이라는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당시를 기억하게 된 것은 아닌지 숙고해 봐야 한다.⁴⁾

Ⅲ. 남북관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남북 관계에서 ‘공정’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진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되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퍼주기’ 담론이 급격하게 확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남북 경제 협력에서 남한의 비용이 북한의 지대와 노동력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 ‘퍼주기’ 담론의 핵심이다. 보수 정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퍼주기’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읽어낸 전략이기도 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제주의는 분단국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 사이의 경제 협력의 가

4) 남북단일팀으로 경기를 치른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에게 단일팀의 경험을 물었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수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몽클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진행자가 다음에도 다시 단일팀을 구성한다면 어떨 것 같은지 묻자 선수들은 다음에는 단일팀을 구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언급하기도 하였다.

치를 숫자로만 접근하게 하였다. 사실 경제적 격차가 상당한 남북 사이의 경제 협력은 즉각적이며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인 까닭에 중장기적인 기회를 노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특히 ‘공정’한 교환 관계가 새로운 윤리로 장착된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상응하는 행동이나 조치 없이 남한의 경제적 투자가 지속되는 것에 동의할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나서자 남북 경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역설적이게도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 모델이 본격화되자 남한 사회는 남북관계를 경제적 가치로 단순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 경제협력이 경제적 성과마저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남북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했다.⁵⁾ 화해와 협력을 위해 시작한 남북 경제협력이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경제주의적 전환을 이끌게 된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제주의적 전환은 필연적으로 ‘공정’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등가성에 주목하는 사고방식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쉽사리 소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의 등가성은 단순히 숫자로만 환산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접경 지역의 평화 안착, 남북 사이의 접촉면 확장과 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 협력 모델 정교화 등 경제적 지표로 계산되기 어려운 상당한 무유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한의 투자비용은 명확한 숫자로 환산되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등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형평’이라는 기준이 현실에서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담론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의 ‘공정’이라는 것도 결코 몇몇 수치로 측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경제적 효과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쉽게 ‘불공정’이자 ‘손해’로 감각되어 버린다.

기억해야 할 것은 1990년대 후반 이래로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통일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5) 물론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남북 사이의 더 많은 교류가 가능했을 것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 통합적 가능성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남북 경제협력은 좌초되고 말았고, 새로운 실험을 할 기회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는 사실이다. 예컨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선평화 후통일’로 대북 정책의 기초가 전환되는 계기였지만,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 방식은 경제주의적인 접근을 견지하고 있었다. 김대중정부의 대북 정책 기초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남북 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대북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평화번영’을 남북관계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는 남한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목표와 결합되어 작동하였다.

이후 보수 정부인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반도 경제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이명박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견인해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고, 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론’을 통해서 통일은 결국 남한 경제의 기회라고 강조했다(통일부 2015, 11).⁶⁾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등장한 문재인정부도 대북 정책의 주요 축을 경제적 이득으로 설정했다는 측면에서 큰 흐름을 공유한다.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상당 부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제안했다. 범박하게 정리하자면 김대중정부 이래로 보수와 진보 정부의 대북 정책 모두 북한을 투자자의 대상으로 단순화하면서 남한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두고는 정치적 이념과 정권의 성격에 따라 상당한 이견을 보여주지만 남북관계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는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주의가 완전히 장악한 한국 사회의 민낯을 일견 반영하며, 군사적 위협 해소나 평화 안착 등과 같은 비물질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으로는 남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득이 된다는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적인 경제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등장한다. 이명박정부 시기에 금강산관광이 멈추고, 박근혜정부에서 개성공단도 폐쇄된 이래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은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

6)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4.1.6. 박근혜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다. 문재인정부가 아무리 ‘변영의 한반도’를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순간 북한이라는 존재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만다. 게다가 북한은 남한의 경제 규모에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국가이다.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이 143만 원이고, 남한은 4,248.7만 원으로 약 29.7배 차이가 나고, 명목 총소득은 북한은 36.7조 원이고 한국은 2,193.5조 원으로 약 59.8배 차이가 난다(한국은행 2023). 둘 사이의 엄청난 경제적 차이는 남북 공동 번영이라는 상을 상상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된다. 예컨대 낙후한 북한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투자가 남한에게 이득이 되는 수준의 경제적 가치로 되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 과정에서 남한 주민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으며, 지난한 통일과정으로 인해 세대를 거쳐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다.

2007년부터 통일의식을 조사해 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경제적 이유에서 점차 통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 주지하듯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가 43.8%로 과반수 아래로 떨어졌다(통일평화연구원 2023). 더 문제적인 것은 경제적 가치가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데 있다. 예컨대 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7%,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6.8%, 통일이 당면한 목표라고 응답한 비율은 18.3%, 통일문제가 경제문제보다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7%로 나타났다(통일연구원 2022, 41). 이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성취보다 경제주의적 이해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남한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서도 경제문제와 통일이 상반될 경우에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서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 17.6%로 나타났다(통일연구원 2022, 48). 또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2.0%이고, 보통은 37.8%, 비동의는 20.2%로 확인된다(통일연구원 2022, 56).

경제적 효과가 없는 통일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남북이 2국가로 공존하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승한 것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 등을 감안했을 때 통일의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더불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필요한 통일을 점차 부정적으로 감각하는 것이다. 다시금 통일연구원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없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56.9%, 보통은 22.5%, 비동의는 20.6%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의 평화공존에 공감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섰음을 뜻한다(통일연구원 2022, 50).

남북관계가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하게 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는 위축되고 말았다.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에서 당장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이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냉소로 귀결되고 만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사고 체계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윤리적 기준이 구현되기 어려운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평화와 통일의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점차 냉소적으로 변화하는 통일 의식을 제고하고자 했지만 경험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극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이 좌절되자 한국 사회는 협력과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정과 경쟁과 같은 경제주의적 사고가 사회 전반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체 복원을 위한 사회적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IV. 북한을 향한 식민주의적 시선: 낭만화

신자유주의적 경제주의를 배태한 한국 사회는 북한을 향한 식민주의적 시선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와 권위주의적 정치에 대한 남한의 우월감이 공고해지면서 북한을 타자화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을 향한 타자화된 시선은 남한 사회가 북한을 동등한 협력자가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전근대적이며 열등한 대상으로 상상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의식은 ‘유사 식민자(pseudo-colonizer)’라는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탈식민의 과정이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남한은 신식민자인 미국과의 동일시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을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상당한 국력을 구축하게 된 남한은 ‘미국’으로 상징되는 가치체계, 경제구조, 근대적 문화 등을 추종하면서 분단체제에서 경쟁하는 북한을 신식민지로 타자화함으로써 하위 식민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일찍이 대만의 문화연구자 천팡싱이 대만의 남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 남방정책 이면의 식민주의적 상상을 지적한 것에서 착안해보면, 남한은 발전된 경제력과 정치적 위상을 발판으로 북한을 하위 식민지로 삼아 탈식민적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이 작동하게 된 것이다(천팡싱 2003).

천팡싱은 파농의 식민주의적 무의식에 대한 분석을 차용하여 탈식민의 과정에서 구축되는 피식민자의 식민자를 향한 동일시의 욕망을 지적한다. 다수의 탈식민 국가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대응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등장하는데, 하나는 식민자에 대한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피식민 문화에 대한 전면적 긍정이다. 파농이 보기에는 이 둘 다 식민자의 인정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주체의 수동성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식민주의에 대한 전면적 저항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강조는 마치 능동적인 저항으로 보이지만 식민자라는 타자를 경유한다는 측면에서 식민주의 작동 매커니즘의 일부다. 이에 파농은 피식민자의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식민자에 대한 동일시의 욕망을 드러내어 해체하는 것만이 탈식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파농 2014). 이는 한국 대중문화를 둘러싼 민족주의적 무의식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공한다.

일례로 ‘한류’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민

족적 자긍심을 구축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는 기표로 작동한다는 분석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Jin 2014; Nam 2013).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에 적극 나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류는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민족주의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류는 2010년대 후반부터 BTS와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culture’라는 새로운 기표로 전환되었고 그 성격도 보다 혼종적인 글로벌 콘텐츠로 이행되었다. K-culture는 과거 한류와는 다르게 글로벌 수준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을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오히려 K-culture를 둘러싼 민족주의적 감수성은 그것이 혼종적 일수록,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화 될수록 더욱 강화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의식 이면에는 “식민지 문화 콤플렉스의 억압 기제와 포스트 식민지적 혼종문화의 해방 기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이동진 2022, 72). 조금 더 세부적으로 K-culture는 한국 사람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추동하는데 그것은 식민을 거친 (혹은 여전히 신식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미국’이라는 대타자 못지않은 글로벌 정체성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K-culture의 기준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 있다는 것은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가리지 않고 미국 진출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낸다.

하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북한을 재현하는 방식이 식민주의적 시각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예컨대 남한의 문화 생산물에서 ‘민족’이나 ‘공동체’ 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낭만화하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을 위험한 존재로 그려내는 것의 이면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보한 남한 대중문화가 새로운 하위 식민자로서 북한에 대한 타자화된 시각이 존재한다.

남한 문화 생산물에 등장하는 북한 재현의 면면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이미 탈냉전 이후 남한이 국력에서 절대적 우세를 점하게 되면서 미디어에서 재현하는 북한은 단순한 ‘적’이나 ‘위협’이 아닌 남한이 잃어버린 과거의 모습이 투영된 존재로 그려진다. 북을 대상으로 하는 노스텔지어적 상상력은 북한을 낭만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인 남한 사회에서 교란된 전통적 젠더상을 담지한 존재로 북한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다 측면에서 흥미롭다(김성경 2020, 102-106). 즉 남한 영화 속의 북한 남성 캐

릭터는 위기에 처한 남한 남성이 잃어버린 원시적 남성성을 물화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미 2010년대 이후의 영화 중에서는 〈용의자〉(2013), 〈베를린〉(2013), 〈공조〉(2016), 〈강철비〉(2017), 〈공작〉(2018) 등에서 강하고, 인간적이며,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남성으로 북한 남성 캐릭터를 전면에 등장시킨 바가 있다. 위의 작품에서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이 북한 남성 캐릭터인 까닭에 자연스레 주연배우가 북한 남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액션 장르에서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북한 남성은 수려한 외모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성애화된 남성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판타지인 남성 캐릭터는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책임감 강하며 로맨틱한 남성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그려지는 북한 남성 캐릭터라도 할지라도 극 중에서 이들은 죽거나 아니면 북으로 돌아가야만 하기에 관객이 주인공과 로맨스를 상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만다(강성률 2018). 결국 북한 남성 캐릭터는 현실에서 있을 법한 존재로 상상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남한 사회에서 이미 형해화된 가족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 활용되는 것에 머문다. 낭만화된 캐릭터의 존재만큼 분단 스토리와 북한이라는 공간도 하나의 판타지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018년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을 확대하지도 그렇다고 다면적 북한 재현을 추동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북한이라는 타자를 더욱 낭만화하는 경향이 포착된다. 예컨대 2019~2020년 사이에 방영된 〈사랑의 불시착〉은 남한 및 해외 시장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었던 작품으로 북한 재현에 어떠한 식민주의적 시선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남한 출신의 재벌 여성이 우연히 북한으로 가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소동을 그린 이 드라마는 공식적인 시놉시스에서부터 북한을 “언어와 외모도 같고 뿌리도 같지만 만날 수 없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이상하고 무섭고 궁금하고 신기한 나라”로 그려낸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되 시청자들이 가장 이질적으로 느끼는 북한 내부를 훑쳐보는 것(voyeurism)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어 큰 반향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드라마에 등장한 북한은 이념이나 체제 통제가 일상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정과 돌봄이 존재하는 목가적 ‘고향’과 같은 공간으로 그려진다. 당연히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북한군 대위 정혁(현빈 역)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남성으로 그려지며, 북한 사람들로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 대부분은 긍정적인 인물로 재현된다. 반대로 남한 사람들은 이전투구에 몰두하거나,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그것도 아니면 일상을 살아내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재현된다. <사랑의 불시착>은 주인공 남녀 사이의 로맨스를 강조하는 것으로 남한 사회의 이념 논쟁을 우회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북한이라는 기표에 남한이 욕망하는 남성성과 목가적 정서를 더욱 세밀하게 투영함으로써 북한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재현에 머물게 한다(신호식 2022).

비슷하게 최근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희생적인 어머니의 전형으로 탈북 여성 ‘계향심’이 등장하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오징어게임>의 여주인공인 ‘새벽’은 북에 있는 어머니를 데려오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하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강인하면서도 희생적인 북한 여성 캐릭터는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여성들을 그려냄으로써 흔들리고 있는 전통적 여성상의 회귀 가능성을 재현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가족 이데올로기를 담지한 캐릭터로 등장하는 탈북 여성은 남한 사회가 그토록 회복하고자 하는 가치와 지향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파농이 지적한 것처럼 ‘타자’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드러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준다(파농 2014, 201-203).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여 북한을 타자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V. 북한이라는 ‘야만’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아무런 소득 없이 막을 내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기를 경험하게 되자 남한 미디어에서 북한 재현은 더욱 제한되었다. 최근에는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이 보도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유통되고 있다. 핵을 앞세운 군사적 위협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정치 지도자의 ‘미치광이’ 이미지와 겹쳐져 북한을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인식하게 한다.

2022년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등장한 것을 두고 후계 구도를 예측하거나 ‘미래 세대’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지만, 무엇보다 남한 대중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북한’이라는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10세 정도 된 딸을 군사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대동했다는 것도 그러하고, 2022년 11월 27일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주애를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표현한 점도 그렇다. 김주애가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받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하는 동심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한 남한에서 김주애의 공식석상의 등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⁷⁾

북한에 대한 ‘이해 불가능성’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일찍이 푸코가 역사적으로 광기라는 것이 이성 의 반대편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던 과정을 살폈던 것을 차용하면, 북한 체제에 ‘미치광이’라는 이미지가 들러붙음으로써 북한은 이성적인 ‘우리’와는 분리되어야 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그만큼 북한과의 거리감이 점차 커져가는 것의 이면에는 북한을 이해 불가능한 존재로 감각하는 것을 넘어 북한을 점차 ‘미치광이’로 감각하는 남한 사회의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최근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미디어의 북한 대표단 재현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팬데믹으로 국경을 봉쇄했었던 북한이 총 18개 종목에 185명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 대표단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미디어의 관심이 상당했다. 남한 미디어는 북한 선수들이 친분이 있었던 남한 선수들에게 냉랭한 태도를 취한 것과 통상적으로 용인되었던 ‘북측’이라는 호칭에 반발하는 모습 등을 보도했다. 이는 남한에 보내는 북한의

7) 김주애의 등장 이후에 언론보도의 댓글을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인된다. 특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의 외모를 비난하거나 어린 김주애가 군 관련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확인되는 댓글 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세상에 미성년자에 담뱃불 부쳐달라고 성냥 준비라니 그것도 가방도 아니고 손에 대기. 재빨리 담뱃불대령하게 기네스북 감!” “기가 막히다.” “지구상에 저런 정권이 있다는 게 놀라운 뿐이네요.” “굉장히 무섭고 소름돋는 장면인데 열렬히 환호하는 게 개 소름이다. 말은 인민들을 위한다지만 주민들은 뼈적말라 딸 주애는 키도 크고 토실토실.”

메시지로 해석 가능한데, 의도된 행동을 통해 북한 측의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남한에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도 남한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긴 모습은 북한 남자 축구 선수의 공격적인 행동이나 국제적 기준을 몰라서 발생한 북한 선수단의 미숙한 경기 운영 등이었다. 특히 북한과 일본의 남자 축구 경기에서 북한 선수들이 보인 거친 행동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국가 대항 축구 경기는 11명의 선수가 국가를 대표해서 상대 국가와 대결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감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줄리아노티 2004). 특히 북한과 일본의 축구 경기는 과거 식민 역사를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만난 북한과 일본은 경기 내내 자존심을 건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일본이 2-1로 승리를 거두었다. 전반전에는 일본팀이 더 많은 반칙을 하면서 거친 플레이를 하였지만 후반전에 들어서 일본이 선제골을 넣자 북한팀은 전면적인 공세에 나섰다. 이때 북한 선수 중 한 명이 일본 스탭프를 위협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했다.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틈에 일본 스탭프가 물을 가지고 들어와 자신의 선수단에게 물통을 나눠주었는데, 갑자기 북한 선수 중 한 명이 일본 스탭프에게 다가가 물통을 요구하여 받고 뒤이어 스탭프를 위협하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 게다가 경기가 속행된 이후 패널티 킥을 허용하자 북한 축구팀은 점점 더 거친 플레이를 하다가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북한 감독과 선수들은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만다.

축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거친 플레이는 때로는 팀의 전략이 되기도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북한 선수단의 거친 플레이는 남한 시청자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감각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남한의 미디어가 북한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를 자극적으로 편집하여 보도하면서 이러한 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주요 방송국에서 북한 선수단의 행동을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 방송하였고,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채널에서는 북한 선수들의 과거 거친 행동을 편집하여 유통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구독자 34.8만 명인 스포츠머그라는 채널에서는 〈북한 스포츠의 별별 행태〉에서 북한이 국제 경기나 관례에 얹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국제 스포츠의 무법자”라고 평가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한다.⁸⁾ 이 콘텐츠는 북한 선수들이 국

제 경기에서 심판이나 상대팀을 상대로 했던 비매너적인 행동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선수단의 행동이 단순히 ‘거친’ 플레이로 설명되기보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축구 경기에서의 거친 플레이나 심판을 향한 항의, 그리고 관중들의 폭력 등은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위는 북한 체제에 연결되어 있는 ‘미치광이’ 이미지와 결합되어 더욱 문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스포츠 팀에 대한 보도 동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는 “저런 미친 국가에 민족이니 형제이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외교에서도 스포츠에서도 비매너와 위협의 온상이자 악의 축”, “저런 것들하고 같은 민족이란 것이 정말 수치스럽다...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져 버려라!” 등의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는 거친 표현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축구 선수들이 보인 행동은 스포츠 정신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특히 일본 축구팀 스태프를 향한 위협적인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흥분한 상태에서 한 우발적인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해프닝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이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근대적이고 이성적인 남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동물적이고 야만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감각하게 한다. MBC 뉴스 채널에 올라온 <오늘의 항저우> 보도의 댓글을 살펴보자.

“매너가 없는게 아니라 **미개**한거임. 국가대표로 나와서 이런 모습 보이면 안 그래도 이미지가 안좋은 국가인데 개념까지 없는 국가로 보임”, “**진짜 맨날 얻어먹으면서도 당당**하고 준 사람 위협하는 게 평소 일상이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행하는 **폭력적인 양아치 행위**가 스포츠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중...”, “북한 선수가 딱 저 나라를 나타냄. 자존감은 바닥에 **자존심만 높아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돈 뜯어내기, 협박, 폭력**. 한민족이라고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음”, “저런 애들이랑 같은 핏줄이라는 게 **문화시민**으로써 진짜 너무나 부끄럽네요”, “저런 거 보면 어른들이 사람 판단할 때 살아온 환경이나 수준 따지는 거 이해됨. 저런 떨어지는 행동을 해놓고 그게 부끄럽고 수

8) 스포츠머그. 2021. “스포츠에서도 별난 북한...북한 스포츠의 별별 행태들.” <https://www.youtube.com/watch?v=Qqk8lsT4iEo>를 참조하라.

준 낮은 짓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새끼 땅아지**마냥 구는 거 좀 봐라”.⁹⁾

대부분의 댓글에서는 북한 선수의 행동을 동물적이며 야만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남한이 ‘문화시민’이라면 북한은 이것과는 거리가 먼 “미개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축구 선수의 행위를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 경험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향도 포착된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퍼주기’ 담론의 영향력이 다시금 확인된다. 남한의 대중들은 비이성적인 ‘떼쓰기’만 일삼는 북한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관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감각하기에 이른다.

한편 기억해야 할 점은 문화 생산물이 담지한 시각에 따라 관객은 또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었지만, 북한 선수단의 인간적인 모습을 포착한 몇 안 되는 보도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여자탁구 복식 결승전에서 한국 팀에 완패한 북한 여자탁구 선수들의 실망감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도한 엠빅뉴스의 동영상에는 북한 선수들의 선전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제 경기에 참가한 경험이 적은 북한 선수들이 바뀐 경기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더욱 어려웠다는 평가도 있었고, 은메달도 너무 훌륭한 성과라며 잘했다는 응원이 많았다.

“같은 동포로서 안타깝다”, “체제가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 서로 미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남북한이 서로 사이좋게 왕래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다른 나라 이겼을 땐 마냥 좋은데 북한을 이겼을 때는 좋지만 마음 한쪽이 찢히다”, “이런 것 볼 때마다 한반도가 나뉘져서 싸우는 게 너무 마음 아픕니다. 왜 타국의 의지대로 나뉘진 한반도가 70년이 지나도록 자유로운 왕래조차 못하고 적으로 남아 있게 되었을까요? 또렷한 정신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¹⁰⁾

9) MBC NEWS. 2023. “[오늘의 항저우] 북-일전서 물병 뺏고 손찌검 위협.. “강패 아냐?” 황당한 北 선수(2023.10.02./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WyBMqH_AmwU의 동영상과 댓글을 참조하라.

10) 엠빅뉴스. 2023. “[엠빅in항저우] 탁구 은메달에 밖에서도 끝내 웃음기 없던 북한 선수단(단독영상)#12.” <https://www.youtube.com/watch?v=mT7567-d9EE>의 동영상과 댓글을 참조하라.

물론 위의 댓글에서도 북한과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이나 통일까지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북한과 ‘적’으로 싸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지난 5년 동안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해 세계 랭킹조차 없는 북한 선수들에게 동정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댓글도 상당수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 북한 선수들의 선전을 더욱 대단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감각 이면에도 남한과 북한 사이를 가르는 권력의 위계와 경제력 서열이라는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선도하는 남한과 그것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전근대적 북한이라는 대비되는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진다.

흥미롭게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관련 보도에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은 바로 단일팀에 관련된 것인데, 앞으로 정치적인 논리 아래 북한과의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즉 이미 달라질 대로 달라진 북한과 ‘우리’를 하나로 엮지 말라는 주장이다. 때로는 ‘야만적인’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엮일 수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남한이 어렵게 획득한 국제대회 출전 기회를 북한과 나누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접근, 실력 차이가 나는 북한과 단일팀을 하는 것은 손해라는 의견까지 비슷하지만 조금씩 결을 달리하는 주장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의식은 북한과의 거리감이 이미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넘어설 정도로 멀어졌다는 사실로, 그 이면에는 글로벌 리더가 된 현대적인 남한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습성을 지닌 북한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와는 더 높은 문화적 근접성(cultural proximity)을 공유하면서, 사회주의 체제이면서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는 북한과는 공통분모를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Ⅵ. 나가며: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평화와 ‘멸망’의 정동

주지하듯 7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살아가는 남한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 모두에서 무감각증에 빠져 있다. 게다가 생존주의와 능력주의가 전면화되면서 파편화된 개인들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는 ‘멸망’의 정동에 휩

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가 상상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신자유주의적 체계에서 남북관계는 경제적 논리로 판단되면서 평화와 연대 같은 무형의 가치는 무시되고, 확대된 공정 담론으로 인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불공정한 것으로 감각되고 있다. 북한과의 거리감은 북한을 타자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가난하고 전 근대적인 북한을 열등하면서도 야만적인 존재로 의미화하는 경향도 포착된다. 현실에 대한 좌절감에 기반을 둔 멸망의 정동은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위협 감소와 같은 문제를 마주할 힘과 역량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파편화된 개인의 수준에서의 마음의 안식으로 평화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주지하듯 갈등은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폭력의 극복을 강조함으로써 반평화 상태를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아닌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상태 전반의 문제로 확장한 바 있다(갈통 2000, 417-418).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러한 착취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와 실천, 문화적 이데올로기 등이 바로 구조적 폭력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이병수 2017, 117-118). 하지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폭력은 더욱 전방위적이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정치, 사회, 문화적 수준에서 매번 좌절되고 만다. 더욱이 경쟁주의와 생존주의가 확장됨에 따라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개인들은 사회경제적인 소외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적 평화를 갈구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체계에서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아차린 개인들이 심리적 수준에서의 ‘마음속 평화’와 같은 안녕감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귀결이기도 하다.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집중하는 평화가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데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들의 심리 치료에 집중하는 문화가 양산되거나 심리적 불안감을 마치 개인 수준의 문제인 것으로 치환해버리는 효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배태한 구조적 불평등은 그대로 둔 채 심리적 혹은 일상적 수준에서 잠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은 이미 그 자체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내

적 평화라는 것은 소비주의적 방식으로 실천되는 경향이 강한 까닭에 상담학, 마음학, 심리학 등과 결합하여 요가, 명상, 심리상담, 힐링 산업 등으로 확장되는 양상도 포착된다(김은준 2018). 단순히 정리하자면 내적 평화에 집중하는 것은 평화의 신자유주의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파편화된 개인들의 심리적 수준에서의 안녕감 추구는 필연적으로 탈역사적이며, 탈맥락적일 수밖에 없다.¹¹⁾ 왜냐하면 평화라는 가치와 지향조차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세분화하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경쟁 사회에서 소진되는 삶을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평화는 생존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개별화된 수준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닐뿐더러 결코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개인 수준에서의 평화는 공동체의 중요성이나 사회 내 존재로서의 인간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평화는 사회 속 타자와의 화해와 사랑을 의미해왔다. 안센의 평화 개념사 연구에 따르면 평화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충족된 상태와 더불어 타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맺기에 기반한 상태를 의미한다(안센 2010, 20-24). 타자와의 관계 맺기는 필연적으로 타자와의 동등한 관계 설정을 요구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경제나 정치 구조의 불평등이 만들어 낸 폭력, 차별, 배제 경험을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 없이는 개인의 생존이나 타자와의 동등한 관계 설정 자체가 불가능함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불평등한 구조가 배태한 권력과 힘의 논리가 국가안보 수준에서 작동하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믿음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데 있다. 정희진(2020, 13)이 적실하게 지적한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는 모든 사회적 문제를 힘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을 뜻하는데, 계급, 지역, 세대, 젠더 등과 같은 차이를 ‘힘’으로 무화시키려 하는 것이나 능력주의가 만들어낸 위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의미화하는 것의 이면에는 ‘힘’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변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으로 불

11) 평화의 탈정치화 문제는 이번 『평화들 PEACES』(2권 2호)에 실린 정희진 선생님과 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퀴바디스, 피시스 - 페미니즘 평화 판: 정희진과 김성경의 대답”을 참조하라.

가능한 것으로 감각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포착되는 ‘멸망’의 정동에서 역설적으로 ‘희망’의 단초를 상상해본다. 한국 사회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리키는 문화적 징후인 ‘멸망’의 정동을 새로운 사회의 포문을 열고자 하는 적극성으로 재위치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도미야마 이치로는 파농을 해석하면서 피식민자는 압도적인 수동성에 지배되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을 능동적 실천이 가능한 지점으로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개념으로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교차하는 ‘정류’인데, 이는 정지와 시작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다(이치로 2020, 25). 도미야마 이치로에게 파농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피식민자의 수동성을 지적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동성을 능동성으로 전복하기 위한 가능성을 탐색했다는 것에 있다. 파농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주체가 완전히 포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순간에서 다시금 자신의 언어와 실천으로 전유하려는 가능성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동과 능동이 겹쳐지는 순간을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 ‘힘’의 원리로 억압된 이들, 경제적, 사회적, 구조적 폭력에 포박된 자들, 각자의 피난처로 숨어 들어간 이들의 실천과 언어에서 수동성과 능동성이 교차되는 지점을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칠게 적용해보자면 문화적 징후로 드러나는 ‘멸망’이 절망적 운명에 대한 순응이라는 수동성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에 숨겨져 있는 주체의 적극적 의지를 찾아 의미화해볼 수 있다. 멸망의 정동은 억압된 이들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힘이 아니다. 그들의 존재와 현실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발신되는 삶과 죽음에 관한 경고장이다. 미래에 대한 절망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드러내는 정동이지만 멸망은 작금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내기에 더욱 전복적이다. 세계의 끝이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묵시론적 성격을 지니기에 동시에 이 세계 ‘이후’의 세상에 대한 상상을 추동하는 정동이기도 하다. 멸망의 정동의 이러한 면면은 인류 문명 이후의 삶을 다룬 문화적 상징에서도 확인된다. 복도훈(2020)에 따르면 디스토피아적 좀비물인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2016)과 <서울역>(2016), 넷플릭스의 화제작 <킹덤>(2019) 등은 과히 한국형 “좀비 아포칼립스 서사”로 정의내릴 수 있는데 이는 세계의 종말 이후에 새롭게 등장해야만 하는 사회의 성격과 희망을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한 아포칼립스 서사가 좀비물이나 SF의 형식을 차용하여 판타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좀 더 현실의 맥락에서 멸망의 성격을 암시하는 문화 생산물로 존재한다. 아래는 싱어송라이터인 이랑의 〈환란의 세대〉의 가사이다. 이 노래는 뛰어난 가사와 높은 수준의 음악으로 2022년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포크 노래로 선정된 바 있다.

이랑 〈환란의 세대〉

또 사람 죽는 것처럼 울었지/인천공항에서도 나리타공항에서도/
울지 말자고 서로 힘내서 약속해놓고/돌아오며 내내/언제 또 만날까/
아무런 약속도 되어있지 않고/어쩌면 오늘 이후로 다시 만날 리 없는/
귀한 내 친구들아/동시에 다 죽어버리자/
그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먼저 선수 쳐버리자/
내 시간이 지나가네/그 시간이 가는 것처럼/이 세대도 지나가네/
모든 것이 지난 후에/그제서야 넌 화를 내겠니/모든 것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넌 화를 내겠니/모든 것이 지난 후에/그제서야 넌 슬피 울겠니/
우리가 먼저 죽게 되면/일도 안 해도 되고/돈도 없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고/헤어지지 않아도 되고/만나지 않아도 되고/
편지도 안 써도 되고/메일도 안 보내도 되고/메일도 안 읽어도 되고/
목도 안 메도 되고/불에 안 타도 되고/물에 안 빠져도 되고/
손목도 안 그어도 되고/약도 한꺼번에 엄청 많이 안 먹어도 되고/
한꺼번에 싹 다 가버리는 멸망일 테니까/
아아아 아아아 아아 너무 좋다/
아아아 아아아 아아 깔끔하다/

마치 자살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가사는 현시대의 극단적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그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선수 쳐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지난 후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동시에 다” 같이 “먼저” 죽어버리자고 노래하는 것이다. 권력과 구조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겠다는 결기가 내포된 가사이다. “모든 것이 지난 후”에 후회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으면서도 결코 혼자서만 죽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한꺼번에 싹 다 가버리는 멸망”이라는 표현은 약한 자, 소외된 자, 억압받은 자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우수 포크 노래 선정 위원이었었던 서정민갑은 이 노래를 “21세기의 민중가요. 그리고 여성의 노래. 그리고 청춘의 노래다. 아니 죽음을 강요당하는 시대의 비명이다. 죽고 싶다는, 죽어가고 있다는 고백이며 그럼에도 죽지 말자는 안간힘이고 기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¹²⁾

그만큼 현재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이야말로 구조적 폭력의 작동을 증언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적극적 저항이기도 하다. 경제주의와 생존주의에 지친 개인들의 고통 섞인 외침은 그 자체로 이 사회의 위기를 드러내면서도 더 이상 이런 사회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멸망’의 정동은 한국 사회 자체를 리셋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여기서 ‘멸망’이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살이라는 것이 주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주체적인 결정이라는 역설은 삶과 죽음이라는 신과 자연의 영역을 주체의 영역으로 치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지표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더 이상 이 사회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합계 출산율 세계 최하위라는 지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과 같은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된 결정이 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임은 분명하다. 지금 한국 사회를 휘감고 있는 ‘멸망’의 정동이 단순히 허무주의적 시각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추동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식민지적 주체성 극복에 천착한 파농은 피식민 주체들이 수동성을 벗어던지고 능동적 주체로 인식의 메커니즘을 전환하는 것을 식민주의의 폭력에 대항하는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주목했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 힘, 구조,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주체들이 능동성을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식민과 탈식민, 분단과 평화, 그리고 생존주의와 경제주의가 복잡하게 얽혀 작동하는 ‘지금-여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파농은 이

12) 선정 위원의 선정의 변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https://koreanmusicawards.com/project/%EC%9D%B4%EB%9E%91-%ED%99%98%EB%9E%80%EC%9D%98-%EC%84%B8%EB%8C%80/>(최종검색일: 2023/7/24).

러한 시도로서 “언제나 질문”할 것을 다짐한다.

결코 도구가 인간을 지배하지 않기를. 인간이 인간을, 말하자면 자아가 타자를 노예화하는 일을 그만두기를. 인간이 어디에 있든, 내가 그 인간을 찾고 원하도록 허락되기를…… 내 최후의 기도는 이것이다: 오 나의 몸이여, 내가 언제나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파농 2014, 223)

부디 모두가 멸망이라는 세계의 끝 이후에 어떠한 세상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않기를. 그래서 결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김성경은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이다. 사회학 연구자로서 탈/분단체제의 문화적 문제를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창비, 2020), 『살아남은 여자들은 세계를 만든다』(창비, 2023)

참고문헌

- 갈통, 요한 저. 강종일 외 역.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 강성률. 2018. “2010년 이후 영화의 북한 재현 양상 고찰.” 『씨네포럼』 31호, 43-68.
- 구은정. 2022. “다원주의 관점으로 재고찰한 공정과 정의.” 『경제와사회』 133호, 109-135.
- 김석호. 2018. “한국 사회의 세대간 공정성.” 『지식의 지평』 25호, 6-23.
- 김성경. 2020.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파주: 창비.
- 김은준. 2018. “포스트힐링시대 한국사회 성찰적 자기계발담론의 가능성 모색.”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3권 2호, 87-134.
- 김홍중. 2009.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43권 5호, 1-29.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한국사회학』 제49권 1호, 179-212.
- 도미야마 이치로 저. 심정명 역. 2020. 『시작의 얇: 프란츠 파농의 임상』. 서울: 문학과지성사.
- 박권일. 2021.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 세계』 38호, 1-39.
- 박영우. 2018. “올림픽 역사상 첫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올바른 결정일까.” 『오마이뉴스』(1월 18일),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96278(최종검색일: 2023/11/3).
- 박주화. 2021.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절반의) 기억』. 온라인시리즈 CO 21-30.
- 복도훈. 2020. 『한국 좀비 아포칼립스 서사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 자본, 국가, 인민의 재현 양상』.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서동진. 2014. 『변증법의 낮잠: 적대와 정치』. 서울: 꾸리에.
- 세넷, 리처드 저. 조용 역. 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서울: 문예출판사.
- 신호식. 2022. “이념 논란이 희석된 남북관계 드라마 연구: <사랑의 불시착>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제9권 1호, 45-60.
- 얀센, 빌헬름 외 저. 한상희 역. 2010.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5: 평화』. 서

을: 푸른역사.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고양: 개마고원.

이동진. 2022. “한류는 문화민족주의의 산물인가?” 『황해문화』 115호, 56-75.

이병수. 2017. “한반도 평화실현으로서 ‘적극적 평화.’” 『시대와 철학』 제28권 1호, 113-142.

임혁백. 2021. “‘우리 시대’의 공정: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공정.” 『철학 과학실』 제128권, 95-117.

장혜경. 2020. “고용과 노동에서의 공정성, 어떻게 볼 것인가?: 인천국제공항 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중심으로.” 『황해문화』 109호, 44-61.

정태석. 2021. “‘능력주의와 공정의 딜레마: 경합하는 가치판단 기준들’” 『경제와사회』 132호, 12-46.

정희진. 2020. “페미니스트 평화 연구의 시작.” 베티 리어든 저. 황미요조 역.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입문』. 서울: 나무연필.

줄리아노티, 리처드 저. 복진선 역. 2004. 『축구의 사회학: 지구를 정복한 축구공, 지구를 말하다』. 서울: 현실문화.

천광성 저. 백지운 외 역. 2003. 『제국의 눈』. 파주: 창비.

코닝, 피터 저. 박병화 역. 2011. 『공정사회란 무엇인가』. 서울: 에코리브르.

통일부. 2015. 『박근혜정부의 통일 구상』.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2022. 『KINU 통일의식조사 2022』. 서울: 통일연구원.

통일평화연구원. 2021. 『2020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 2023. 『2022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파농, 프란츠 저. 노서경 역. 2014. 『검은 피부, 하얀 가면』. 파주: 문학동네.

한국은행. 2023. “남북한의 주요경제지표.”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0>(최종검색일: 2023/11/14)

흑실드, 엘리 러셀 저. 유강은 역. 2017. 『자기 땅의 이방인들: 미국 우파는 무엇에 분노하고 어째서 혐오하는가』. 서울: 이매진.

Jin, Dal Yong. 2014. “The Power of the Nation-state amid Neoliberal Reform: Shifting Cultural Politics in the New Korean Wave.” *Pacific*

Affairs 87(1): 71-92.

Nam, Siho. 2013. "The Cultural Political Economy of the Korean Wave in East Asia: Implications for Cultural Globalization Theories." *Asian Perspective* 37(2): 209-231.

Abstract

Im/possibility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Apocalyptic Sentiment

Kim Sung-kyung*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escalating desensitization towards peace within neoliberal South Korea, illuminating the unconscious adoption of a colonialist perspective towards North Korea. In a milieu where survivalism and economism reign supreme, cooperation with ‘the impoverished and pre-modern’ North is no longer a societal priority. The subconscious perception of North Korea as inferior or barbaric impedes the conception of it as an equal partner in the pursuit of peace. Despite the government’s purported emphasis on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is predominantly viewed as a “resource” or “market” for South Korea’s prosperity. The prevailing pessimism about the future is exacerbated by the pervasive apocalyptic sentiment stemming from intense societal competitiveness, fostering a cynical indifference to historical imperatives such a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is article endeavors to reinterpret the prevailing apocalyptic sentiment as a potential wellspring of new hope, aspiring to establish a different paradigm and dismantle existing social conditions. Ultimately, the focal point is on transforming pessimism about the future into opportunities for the present.

Key Words: peace insensitivity, North Korea, media representation, colonial gaze, apocalypse

논문투고일: 2023. 10. 30.

논문심사일: 2023. 11. 20.

게재확정일: 2023. 11. 24.

*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kksocio@kyungnam.ac.kr